

미국, L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로 연수를 다녀와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천식알러지센터

김효빈

1년 반이라는 연수기간이 끝나고 돌아와 그 때를 다시 생각하는 이 시간.....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역시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즐겁고 기대에 부풀었지만 또 살짝 걱정도 되던 그 시간이 사실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생활이 한국에서보다는 여유롭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 기쁜 시간이었지만, 안 하던 집안 일들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내 일과 함께 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지고 볶으며 생활하였지만 역시 우리 가족이기에, 아직 남편과 아이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혼자 먼저 들어와 있으니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는 LA에 위치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Keck Medical School, Preventive Medicine 분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Frank D. Gilliland 선생님을 PI로 모시고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Children's Health Study라는 cohort 연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알레르기질환에 있어 제 연구의 관심분야가 gene-environment interaction에 관한 것이어서 무턱대고 pubmed를 열고 'children, gene-environment interaction, asthma'라고 검색한 자료들에서 Frank 선생님을 발견하고 이메일을 드렸는데 너무도 흔쾌히 좋은 답을 주시고 DS2019를 받기까지 하나도 어려움 없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지역의 선생님들과 co-work을 할 때 함께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니 teleconference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의 처음 면접도 skype를 통해 저의 관심사를 물어봐 주시고 함께 일 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해 주셔서 정말 들뜬 마음으로 연수를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Frank 선생님의 열정적이 모습과 한 마디의 지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인자하신 우리 할아버지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Preventive Medicine 분과에서는 환경요인들, 특히 대기오염과 여러 가지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알레르기질환만을 생각하고 있던 저로서는 눈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Autism, 비만, 폐기능, FeNO 등등 다각도로 대기오염의 영향을 연구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COCOA cohort 연구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함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자 진료에 주로 힘을 쏟던 제가 책상에 앉아 data를 분석하고만 있으려니 많이 생경했었고 conference가 있어 잠시 들렀던 LA Children's Hospital에서 오히려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꼈었습니다. 환자 진료를 할 때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내 자리는 거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수가 끝나갈 즈음에는 환자들과 함께 일했던 한국의 동료들이 너무나 그리워졌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한번 더 가면 더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끝난 것에 대한 아쉬움이겠지요? 떠나온 지금, Soto Street Building 연구실 책상에 모여 앉아 함께 회의하던 그들이 많이 그리웁니다.